

3번의 선출 기쁨, 그리고 고민

- 정문영 신임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고객홍보팀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2015년 말, 축산계에 또 하나의 변화 조짐이 일었다.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을 대표하는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신임회장이 선출된 것이다. 당연직으로 축산발전협의회장을 겸임하게 되는 이 자리는 2016년 1월 1일부터 2년 임기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은 정문영 천안축협조합장이다. 남다른 새해, 2016년 1월 1일을 맞이 한 정문영 신임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을 천안축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만났다.

쫄 이제 막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임기가 시작돼 많이 바쁘실 줄 압니다. 그래도 다행히 천안에 계셨네요.

정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이거나 당연직인 축산발전협의회장은 늘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상시 근무해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조합장 모임처럼 일이 있을 때나 서울에 가지 대부분 천안에서 근무합니다. 천안이 본집인데, 본집

살림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웃음)

쫄 그런데 좀 독특합니다. 보통 조합장 사무실은 관리부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지도부에 있네요.

정 천안지역축협은 재작년(2014)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전에는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사옥에 있다가 3년여 전에 현재 건물을 지어 이전했죠. 그때 아무래도 지도부에 조합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합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관리부가 아니라 지도부에 붙여 조합장실을 마련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지역 출신에 소를 키워온 사람이라 애써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합원이나 직원들과 편하게 소통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예 문도 항상 열어놓는 편입니다.

쫄 지난 한 해가 누구보다 바빴던 이들 중 한 명이라고 의심의 여지없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지역 조합장 당선에 이어진 4월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와 도시조합축산물유통협의회 회장 선출.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으로도 선출되었습니다. 회장님께 있어서는 기쁜 일의 연속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2015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다까?

정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우선, 천안축협조합장은 올해로 11년째인데, 만장일치로 3번째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굳건히 믿어주시는 만큼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협의회장 취임 때 도시축산 쪽은 위임하려고 했었습니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쪽도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지역본부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충청 지역에서 맡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 할 시기가 된 상황에 추천돼 이런 중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운영협의회장이라는 자리가 대표권은 있으나 큰 권한은 없습니다. 축산현안에 전국 조합장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죠. 무엇보다 그러한 기본 역할에 충실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쪽 조합 일을 오래 하셨으면 소 키우긴 힘들겠어요. 꽤 오래 사육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정 조합장은 기본적으로 소를 키우는 사람이어야 하죠. 저도 많이 키울 때는 100여두까지 키웠습니다만 조합장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규모가 많이 줄었고, 애꿎은 안사람만 더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쪽 소를 키워오며 지역 변화의 영향 속에 이사도 하고, 요새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인 축분 처리 문제, 축사 환경 관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어느 농가와 다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그 고민을 농가들이 좀 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쪽 네, 여러 직책을 맡고 계시니 아무래도 축산 현안에 더 민감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문제도 그중 하나고요.



정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축산농가는 지역주민들에게 선호 받는 시설이 아닙니다. 냄새가 난다, 주위 환경이 오염돼 생활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 하려고 축산환경 개선이 모색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축분 처리 문제의 경우 법으로도 제재되니 꼭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처리해야 합니다만,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힘들죠. 그렇다보니 지자체나 지역 축협에서 시설을 마련해 대줘야 하는 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큼니다. 축산농가나 조합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 중에서는 이러한 자연순환센터 현안이 마찰 없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쪽 고민 얘기 나온 감에 하나 더 얘기해보죠. 지난해부터 근내지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 원이지만 한우농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문제라 회장님께서도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 그렇죠. 우리나라는 육류 소비량 자체가 적은데 몇 배나 많은 서양과 동등하게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축산을 소비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껏 고기를 먹어왔지만 이상이 없었고요. 영양이나 성장을 고려할 때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확대 해석해서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급기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등급기준은 소비자의 선택을 도우면서 더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발전해왔습니다. 이걸 한 번에 억지로 다 바꾸려고 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준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급기준 변화에 따른 진통도 적어질 것이고, 농가도 따라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쪽 새해 벽두부터 심각한 얘기가 많았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지난 연말 축산물이력제 연찬회에서 이력제 위탁기관

이행실태 평가 B그룹 최고 점수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본집이라 칭하신 천안 축협도 좋은 실적을 올리며 흑자를 기록했지요.

점 조합원들과 직원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특히, 이력제는 현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소 2만 8,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중 자가장착은 1,000두 정도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을 통해 장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력제라는 게 소비자에게 신뢰를 담보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 만큼 담당자들이 더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장일이라는 게 솔직히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일도 복잡하고 경영도 쉽지 않아요. 큰 조합이다 보니 조금만 경영이 잘못돼도 순식간에 큰 손해를 낼 수 있는데, 많이들 관심 갖고 협조해주신 덕분입니다.

다만, 올해가 걱정입니다. 다른 조합들도 다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선, 축산질병 문제가 있습니다. 천안 지역은 2014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지난해까지 그 영향으로 고통 받았 습니다. 그래도 2015년에는 없었지만 전남지역 농가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방역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 마리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폐업 보상금 때문인지 특히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의 사육이 송아지 생산 기반이 되었는데, 그게 무너졌으니 밀소가 없어진 셈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축산 전반이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족 그 밖에 새해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 기쁜 만큼 책임감이 앞서는 시작입니다. 올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일은 축산의 자주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축산 쪽은 농·축협이 통폐합 될 때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법으로 축산의 자주성을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지주로의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연합회 체제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기업 형태가 되니 현재의 시스템은 전면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상위 10개 중 6개가 축산 쪽입니다. 1등인 쌀을 빼면 7등까지 다 축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딸기·포도와 같은 취급을 하며 법으로 보장했던 독립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일은 축산경제 새 대표 선출 때 힘을 합쳐 경제지주로의 일원화를 차단하고 축산 독립성 수호 요구가 묵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축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이가 농협중앙회장이 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족 끝으로 등급정보 365⁺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정 2016년 새해입니다. 등급정보 365⁺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등급정보**